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신축 가속도

[원주]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들의 청사신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내 4,919㎡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 착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31일 현장에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의 진료와 재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원주 혁신도시 내 신청사가 준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일 현장서 착공식 계획

적십자사·도로교통공단 등 기관도 사업 잇따라

되면 총 116명의 임직원들이 옮겨올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와 도로교통공단은 9월 말 착공을 목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축허가를 신청해 강원도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관광공사도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대한석탄공사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밖에 광해관리공단은 설계를 마무리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시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했다.

자체 청사가 아닌 임차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도 예산에 청사 신축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 산림항공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에는 청사 신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강원경제 홀로서기 가능한가 ⑥ 대형공사, 지역업체로 물꼬터야

올림픽 공사 '남의 잔치' 안된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마련한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에는 강원도와 지역 건설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업체 우대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도내 건설업체의 요구에 대해 “시행령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도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부 입장에서 적극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에 도내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분야는 남의 잔치가 될 수밖에

올림픽특별법 의무 참여 명문화 필수

원주~강릉복선전철 공사 합류도 미미

에 없다. 더욱이 공공부문 의존도가 절대적인 강원건설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올림픽시설(4245억원)과 인프라 구축(8조6707억원) 등 평창올림픽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가 9조9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조원이 넘는 단일공사만 3건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대형 사업에 지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내 건설업체는 고사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5개 공구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 결과 도내 일반건설업체 5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합류했을 뿐 전문건설업체는 입찰 참여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시공실적 등 참여자격을 강화, 도내 업체는 응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역의 한 증견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이제는 수혜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도 한계에 왔고 각종 SOC예산도 복지 예산 등에 밀려 감소 추세에 있다”며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도내 업체의 참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설 땅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내 건설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06년 기준)은 13.6%로 공공행정(18.0%), 관광관련산업(17.2%)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사물량은 꾸준히 감소, 올 상반기 현재 공공부문의 일반건설 발주금액은 5882억원, 전문건설 분야는 1530억원으로 지난 2009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그만큼 지역건설업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도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1000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에도 도내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등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도내 건설업체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송정복

사고

**출향도민과 함께 하는
'2012 강원사랑 3대기획행사'**

▶ 일시 : 8월 30일(목) 오후 5시 ~ 8월 31일(금) 오후 5시
▶ 장소 :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출향도민과 함께 하는 '2012 강원사랑 3대기획행사'는 출향도민과 함께 하는 2012 강원사랑 3대기획행사의 일환으로 8월 30일(목) 오후 5시부터 8월 31일(금) 오후 5시까지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매년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민회(총회),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개최되고 있는 강원사랑 3대기획행사는 올해 강원고용대상을 처음으로 정. 30일 첫 시상식을 갖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은 기업어건 속에서도 고용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강원도 향토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의 노력과 실적을 알리고 강원도의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2 강원경제포럼과 강원인 역량결집을 위한 민선간담회는 도내·외 각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강원 경제의 오늘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홍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의 특강과 격려하는 대화 등을 통해 강원발전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인 원정의 특강과 격려하는 대화는 정경호 강원인의 대자연을 만끽하며 고향사랑의지를 다지는 제(제) 강연회 강연회(사) 강원도민회(총회)가 열립니다.

출향도민과 함께 진폭과 화합의 장이 될 강원사랑 3대기획 행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I. 2012 강원고용대상 시상식

▶ 일시 : 8월 30일(목) 오후 5시 ▶ 장소 : 하이원리조트 그랜드볼룸

II. 강원경제 포럼·강원발전 민간간담회

▶ 일시 : 8월 30일(목) 오후 5시(30분)
▶ 장소 :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 주제 : 상생협력시대 강원발전전략
▶ 특강연사 : 홍철(사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위원장

III. 제9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드피

▶ 일시 : 8월 30일(금) 오전 8시 ~ 12시 ▶ 장소 : 하이원CC
▶ 참가 대상 : 재향 시·군·면, 출향도민

■ 문의 : 강원도민일보 총무국 문화사업부 (033-280-9151 ~ 2)
■ 주최 :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민회(총회)·하이원리조트
■ 후원 : 강원도·강원도회의원협의회·(사)강원도민회·강원경제지총협회
정선군